

한전·농어촌公...취업 선배들이 비법 전수

전남도, 다음달 3일 한전서 5개 기관 참여 '잡 콘서트' 지역대 출신 등 6명 公社 취업 성공담...채용설명회도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이젠 공공 기관 취업 안내를 위한 '잡 콘서트'가 열린다. 행사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이젠 공공 기관 5곳에서 근무하는 선배들이 지역 대학 출신 구직자들에게 취업성공담을 들려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전 등은 참가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4월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빛가람 혁신도시 내

한전 1층 대강당에서 한전, 한국농어촌 공사, 한전KDN(주), 한전KPS(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잡 콘서트가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는 한전에서 근무하는 지역 대학 출신 직원 2명 등 모두 6명의 '선배'가 참석해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해 줄 예정이다. 선배들은 공공입사를 위한 필수 준비사항, 미래설계 등을 알려주게 된다. 또 이에 앞서 열리는 채용설명회에서는 해당 기관 소개와 바라는 인재상을 설명하며 구직자들이 합격의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언한다. 기관별로 2015년도 구체적인 채용계획, 직무능력검사와 인성검사가 등이 중시되는 새로운 채용제도 등에 대해 풀이해주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다. 잡 콘서트가 끝나면 참석자들은 5개 공공기관의 안내로 기관 탐방에 나선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젠 공공기관들이 지역대학 출신 인재를 많이 채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각 기관들이 바라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 출신 구직자들을 지도 또는 지원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자주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올해 1000명을, 한국농어촌공사는 171명, 한전KDN 90명, 한전KPS 350여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0명 등을 신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 등에서는 기관별로 채용인원의 30%를 지역인재에 할당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송정역 경유 버스 노선 5개 확대 목포역→버스터미널 직행 日 4회

내달 2일 KTX 개통...광주·전남 교통대책 마련

광주시가 내달 2일 호남선 고속철도(KTX) 개통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 신설, 고급직행좌석버스 투입 등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한 교통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여전히 광주 구도심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송정역에서 나주 혁신도시를 오가는 택시요금 체제 미확정, 광주-전남 일부 시·군간 버스 노선 갈등 등도 해결되지 않아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송정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2개 노선이 신설되고, 3개 노선은 조정되거나 구간을 연장해 송정역을 경유하도록 했다. 또 송정역 건너편에 승차전용 택시승강장이 조성되고 주변 도로 확장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4월부터 첨단-송정역을 연결하는 송정33번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 운행에 들어간다. 이 노선은 18.5km로 정부광주합동청사~첨단지구~수완지구~송정역과 연결해 이용객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5월부터는 조선대에서 광주송정역, 광주전남혁신도시(35km) 구간을 고급직행좌석버스(02)도 투입된다. 혁신도시와 송정역 간 광역 환승교통망이 구축되고, 문화전당, 전남대 등 광주 시내 주요 지점을 연결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또 송정역 주변 교통시설도 대폭 개선해 혼잡을 해소하기로 했다. 역 건너편에 승차전용 택시승강장을 신설하고 상무대로 차도 재포장, 송정역 전면 버스쉼터 확대 설치, 송정역 주변 주차장(209면) 조성 등도 추진된다. 한편 목포시도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송정 구간 개통으로 많은 외지인이 목포를 찾을 것으로 분석하고, 목포역에서 시외버스터미널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논스톱 버스를 1일 4회 운행하는 등 교통 편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건강 검진·과태료

'민원24'에서 확인

행자부, 21종 행정정보 안내

행정자치부는 예비군훈련일과 민방위교육일,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행정정보 21종을 정부 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를 17일부터 확대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으로 이들 21종 정보는 우편고지서나 개별 기관 웹사이트를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에 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기존 조세·사회보험 미환급금, 경찰청 과태료, 운전면허 정보에 더해 건강·병역·세금·연금 분야에서 18종이 추가됐다. 민원24는 작년 말 기준으로 가입 회원 1330만명, 하루평균 방문객 24만명 이상인 인기 전자정부 서비스로, 많은 국민이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했다.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는 피시(PC)와 모바일 기기 모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로 민원24에 로그인한 후 사용자 동의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행자부는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가 널리 알려지고 쓰이도록 민원24 홍보대사인 뿌로로 캐릭터를 활용한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한 달 앞둔 16일 오후 진도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실종자들을 찾아달라"고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1주기 코 앞...출범도 못한 '세월호 조사위'

이석태 위원장 "정부, 위원회 출범 협조해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은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우리 위원회는 아직도 활동을 시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보달청의 임시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17일 정부에 정식으로 인을 송부했지만 아직도 정부는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당시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단은 위원회의 규모와 예산을 120명과 192억원으로 정한 직제·예산과 시행령안 등을 정부에 넘겼다. 이후 수차례 실무진 접촉이 있었지만 정부 공식 입장이 미뤄지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제때 출범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이 위원장은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는 정부기구이지

만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라면서 "특조위의 직제와 예산마련에 행정부가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면 자칫 독립성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과 국민 입장에서 모든 것이 매우 느리게만 느껴질 것이고 특조위가 정부 보고서를 재검토해 정리할 수준의 결과를 내놓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조속히 특조위가 출범하도록 협주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여수서 전국 첫 태양열 해수 담수화 실증

에너지기술연구원, 경도리조트 인근 1일 10t 정수 타진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양열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실증 사업이 전남에서 선보인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여수 경도리조트 인근 3000㎡ 부지에서 태양열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실증사업을 한다. 다음달 설계를 거쳐 6월부터 9월까지 태양열·태양광시스템, 고체연료보일러(보조열원), 담수기, 모니터링 등 설비를 갖추고 10월부터 실증에 나선다. 태양열을 이용해 데워진 물로 터빈을 돌려 바닷물이 끓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증기를 액체화해 식수로 사용하는 기술은 선보이는 것이다. 바닷물을 일정 온도로 끓이면 염분이 거의 없는 수증기가 발생하고 다시 일정 온도를 낮추면 이 수증기를 식수로 만드는 기술이다. 이 사업을 위해 태양열·태양광시스템, 고체연료보일러, 담수기 등의 설비가 투입되고 모두 5억5000만원의 국비가 소요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1일 10t의 바닷물을 정수해 식수로 사용할 때 태양열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사업이 성공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남도는 실증사업이 성공하면 도내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섬지역 해수담수화 사업은 분리여과망을 이용해 바닷물의 염기를 걸어내는 역삼투압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며 "역삼투압 방식은 분리여과망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하는 등 유지비가 많이 드는데 반면, 태양열(신재생에너지)을 이용한 해수담수화 방식은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이 성공하면 여수경도리조트 관광객에게 바닷물을 정수한 식수를 홍보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전남 5개 시·군 3363가구, 6413명이 해수담수화를 통해 식수를 공급받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의료광고 심의필 제 141205-중-65758호

진료내용

라식 LASIK **라섹** LASEK **ICL** 안내렌즈삽입술 **SMILE**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수술

SMILE 수술이란?
라식수술시 만들어 지는 각막절편을 만들지 않고, 2mm의 최소절개를 통해 각막을 제거하는 신개념 수술입니다. 라식수술로 생길 수 있는 안구건조증을 최소화하고 각막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시력교정수술입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 빌딩

상무지구 방면 **밝은광주안과 의원**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사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t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